

경북도, APEC 준비 만전... “최고 수준 객실·서비스 제공”

정상 전용객실 등 설비 새단장
‘찾아가는 호텔 종사자 교육’ 실시
식음 분야에 전문인력 배치

경북도와 경주시는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정상 전용 객실(Presidential Suite·PRS)을 비롯한 숙박시설을 국내 최고 수준으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APEC준비지원단(단장 김상철)은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에 필수적인 숙박환경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한국호텔업협회 주관 ‘찾아가는 호텔 종사자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경주 지역 APEC 공식 숙소를 대상으로 ▲APEC 정상회의 이해 ▲국제 의전 서비스 ▲일반 고객 응대 매뉴얼을 주제로 실시돼 호텔 종사자의 국제회의 이해도와 의전 역량을



경북 경주 힐튼호텔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공식 숙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호텔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또한 교육 기간에는 전문가들이 AP EC 숙소를 암행 평가하고 결과를 공유해 개선을 유도, 수도권 특급호텔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기업인·미디어 배정 숙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도 찾아가는 서비스 교육과 집합 교육을 5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다.

2025년 APEC 정상회의에는 21개 회원국 정상과 대표단, 경제인, 언론인 등

약 2만 명이 참석하며, 일 최대 7,700객실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경북도와 경주시는 35개의 PRS 객실을 마련해 정상급 인사들을 위한 충분한 객실을 확보했다. 현재 리모델링 공정은 약 90%에 달하며, 이달 안에 한국적 멋과 아늑함을 담은 세계적 수준의 숙소로 재단장될 예정이다.

앞으로는 숙소의 서비스 품격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APEC준비지원단과

숙박시설 관계자들이 협력해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또한 준비지원단은 한국컨시어지협회, 한국호텔업협회 등과 협약을 통해 호텔별 전문 컨시어지와 프론트데스크, 식음 분야에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로비에 APEC 안내데스크를 설치해 외국인 응대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최고 수준의 객실과 품격 있는 서비스를 완벽히 준비하겠다”며 “경주는 이미 제1차 고위관리회의와 문화산업고위급대화를 성공적으로 치른 경험을 바탕으로 역대 가장 완벽한 APEC 정상회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의 저력을 국제사회에 보여줄 절호의 기회”라며 “정상들 뿐만 아니라 세계적 기업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월드클래스 수준의 숙박시설을 완벽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부산시

북항 재개발 협력의 장 마련

부산지역 건설업체들이 대형 건설사와 직접 만나는 ‘상생데이’가 11~12일 열린다. 시는 1대1 상담을 통해 북항 재개발 협력의 장을 지원한다.

해운대 웨스틴조선부산과 북항 1·2단계 재개발 현장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국내 시공 능력 상위 건설대기업 19개사, ‘역량강화(Scale Up)’ 사업에 참여한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 40개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 첫날 오후 2시 웨스틴조선부산에서는 건설대기업과 부산건설업체 간 1대1 상담이 진행된다.

이튿날에는 시와 지에스(GS)건설을 비롯한 주요 건설대기업 9개사가 북항 1·2단계 재개발 현장 등을 방문해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지난 8일 안동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제백신포럼’ 개막식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북도, ‘세계 백신허브’ 청사진 그린다

국제백신산업포럼

‘미래 감염병 대응 전략·기술’ 주제
국내외 기업·연구기관 협력 확대

경북도는 8일부터 9일까지 안동국제컨벤션센터에서 ‘미래 감염병 대응을 위한 백신 전략과 혁신기술’을 주제로 ‘2025 국제백신산업포럼’을 열고 세계적 백신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다졌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김형동 국회의원, 권기창 안동시장을 비롯해 SK바이오사이언스, 사노피, 씨모피서 사이언티픽 등 국내외 바

이오·백신 기업과 연구기관이 참석해 글로벌 백신산업의 전망과 최신 기술 동향을 공유하며 열린 논의를 이어갔다.

포럼은 전염병 대응 혁신 연합(CEP I) 소속 뉴턴 와호메 박사의 ‘팬데믹 대비 엔진: 질병 X 대응을 위한 통합 AI/ML 플랫폼’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국내외 백신 개발 동향과 정책, 혁신 기술, 인공지능(AI) 기반 백신 개발, 신·변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R&D 전략 등 다양한 주제를 이틀간 집중 논의했다.

경북도는 포럼에 참가한 국내외 기업, 연구기관, 학계와 협력을 확대하고 기술 교류를 강화해 세계 백신 허브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경북=김준한 기자

울진군, ‘대한민국 파크골프 성지’ 발돋움

대규모 인프라 확충... 전국대회 유치

울진군이 파크골프 인프라 구축과 전국대회 유치를 통해 스포츠와 관광이 결합된 체류형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

울진군이 ‘대한민국 파크골프 성지’를 향한 청사진을 본격 가동 중이다. 대규모 인프라 확충과 전국 규모 대회 연속 개최, 여기에 치유와 관광을 결합한 체류형 복합시설까지 아우르며 스포츠 도시로의 도약을 꾀하고 있다.

현재 울진군은 기성면에 9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완공한 데 이어, 평해읍

에 중대형급 36홀 골프장을 올해 안에 준공할 예정이다. 여기에 복면 흥부생 활체육공원에도 9홀을 추가 조성하고 있으며, 중장기 계획으로는 온정면에 36홀 클럽하우스형 골프장을 도비 확보를 통해 본격 추진하고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체류형 스포츠 관광 기반을 확대해 군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성과를 이루고, 스포츠·관광·건강이 어우러지는 대한민국 대표 스포츠 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울진(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

경남도, 사천공항 활성화 정책 성과

섬에어, 12월 사천~김포 시범운항

섬에어가 오는 12월부터 사천~김포 노선 시범 운항에 들어간다고 경남도가 밝혔다. 이는 사천공항 활성화 정책의 하나로 추진되는 소형항공사 운항 확대 사업의 핵심 과제다.

섬에어는 ATR 72-600 신조기를 활용해 시범 운항을 진행한다. 이어 내년 상반기 항공운항증명(AOC, Air Operator Certificate) 획득과 동시에 사천~김포·제주 노선에 정식 취항할 예정이다.

시범 운항은 단순한 테스트가 아닌 정식 취항을 위한 필수 과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신규 항공사의 안전 운항 능력과 운영 시스템을 검증하기 위해 시범 운항을 의무화하고 있다. 실제 운항 환경에서 안전성과 정시성, 운영체계를 종합 평가하는 절차다.

울릉공항 개항 시에는 사천~울릉 노선까지 운항을 확대해 서부 경남 지역 주민들의 수도권 이동 편의성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이번 성과는 지난 4월 경남도·진주시·사천시·한국공항공사와 섬에어 간 체결된 사천공항 신규 취항 협약의 구체적 결실이다. 협약에 따라 경남도와 관련된 지자체는 재정·행정적 뒷받침과 공항 홍보를 담당하고, 섬에어는 단계별 노선 확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성준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섬에어 신규 취항은 도민 항공 이동권을 확대하는 동시에 사천공항의 기능 재편 필요성을 확인시켜 주는 중요한 계기”라며 “경남도는 국토부와 항공사 등과 긴밀히 협력해 사천공항이 국가 전략 거점이자 우주항공 허브공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포항시, 23일 ‘스마트 제조 포럼’ 개최

애플 제조업 R&D 센터와 양일간 진행

포항시와 애플 제조업 R&D 지원센터는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포항공과대학교(POSTECH) POSCO 국제관과 애플 제조업 R&D 지원센터에서 ‘스마트 제조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은 글로벌 제조업 혁신 동향과 대기업의 스마트 제조 전략을 공유해 중소기업들이 세계적인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행사에는 국내외 제조업 및 빅테크 분야 전문가와 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해 스마트 제조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한다.

특히 세계적인 로보틱스 권위자인 데니스 흥 미국 UCLA 교수가 첫날 기조

강연을 통해 스마트 제조와 로보틱스 융합의 비전을 제시한다. 이어 세계경제포럼(WEF)의 페데리코 토르티 선임 전문가가 글로벌 제조업 트렌드와 지속 가능한 혁신 전략을 주제로 강연한다.

또한 애플 관계자와 국내 주요 대기업 전문가들도 연사로 참여해 ▲스마트 제조 최신 기술 동향 ▲AI·데이터 기반 제조 혁신 ▲사이버 보안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간다.

둘째 날은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고민하거나 적용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한 실질적 세션으로 구성됐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스마트 제조 포럼은 애플과 포항시의 긴밀한 협력을 상징하는 대표 행사”라며 “관내 중소기업 관계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춘해보건대-울산시관광협회

울산 ‘라이즈’ 사업 협력 본격화

춘해보건대학교와 울산시관광협회가 울산을 문화·관광 힐링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지난 9일 울산시관광협회 대회 의실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하며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을 본격화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학생들은 현장 실습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며 지역 사회는 문화·관광 산업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울산=이도식 기자

창원시

외국인 지방세 일제정리 추진

창원시가 조세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오는 10월까지 일제정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주소 불일치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는 체납자를 집중 관리해 실제 체류지를 확인하고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미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조회 및 압류,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공매 처분 등 강력한 체납 처분 절차를 실행한다.

/창원(경남)=손병호 기자

영천시

국민체육센터 회원 700명 돌파

영천시가 국민체육센터 개관 한 달 만에 회원 700명을 모집하며 시설 운영에 청신호를 켜다.

지난달 1일 개관한 영천국민체육센터는 3일 기준 등록 회원이 총 706명에 달했다. 종목별로는 수영 378명, 헬스 278명, 요가 50명이며, 특히 수영과 요가 프로그램이 빠르게 자리 잡으며 지역 생활체육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개관 초기 부족한 점은 신속히 보완해 생활체육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천(경북)=김준한 기자